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 열어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관내 14개
사회복지시설에 한우고기 전달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나희주)는 2018년 설 명절을 맞아 12일 시청광장에서 우리 주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상대로 사랑의 한우고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정읍한우협회에서 관내 14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한우고기 208kg(730만원 상당)을 전달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훈훈한 정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추진한 나희주 정읍한우협회장은 “한우고기 나눔 행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경기 침체로 위축되고, 축산 강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한경쟁에 놓여 있는 한우농가들의 사육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계층에 한우고기 지원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사)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가 시청현관에서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를 갖고 4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470kg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시에 기탁한 돼지고기는 설을 맞이해 어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나희주)는 2018년 설 명절을 맞아 12일 시청광장에서 우리 주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상대로 사랑의 한우고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돈 자조금과 돼지 사육농가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했다. 정읍시는 기증받은 돼지고기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안정용 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장은 “FTA 체결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양돈농가들이 힘든 시기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생산자단체가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와 (사)대한한돈협회 정읍시지부는 설명절과 추석명절 및 연말 등에 한우고기 및 한돈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동)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학우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예그린맨션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두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시의원에게 큰 힘이 되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주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더 힘껏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규남 기자

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 돼지고기 1000kg 기탁

대한한돈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구경본)는 12일 진안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돼지고기 1,000kg(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매년 설·추석 명절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돈협회 진안군지부는 우리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구경본 지부장은 “오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이날 후원받은 한돈 50박스(박스당 20kg)를 추석 전 관내 200여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전달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청년회의소, 군청에 연탄 2000장 전달

순창청년회의소(회장 김종덕)에서는 12일 순창군청을 찾아 연탄 2,000장(15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된 연탄은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덕 회장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효자2동 주민자치위원회, 백미 20kg 42포 · 생필품 전달

효자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자생단체는 12일 효자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생활이 어렵거나 불뭉을 받지 못하는 의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백미 20kg 42포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자생단체 임동은 매년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활용품지원, 김장김치전달, 자원봉사활동 등 꾸준히 이웃돕기를 실천해 왔으며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효자2동 송규만 동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기탁해 공적자원 연계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공명이 사랑나눔회, 불우이웃에 성금 430만원 전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회장 신을재)’는 설 명절을 맞이해 12일 조순가정, 독거노인 및 임환자 등 전북 관내 불우이웃 30세대 및 보호시설 2곳 등에 총 43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성금 전달, 배식 봉사, 사랑의 연탄배달, 치매노인 나들이 봉사 등의 나눔활동을 2007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 신을재 회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68-9700 ·업무용 FAX 268-9703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6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창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66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66	정읍지사 538-30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사 010-9645-9366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후2동 주민센터 방문 500만 원 상당 생필품 전달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 이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주제일MF라이온스는 12일 인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써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 이날 인후2동 마을계획추진단과 운누리교동봉사대는 라면 10박스와 계란 60판을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박교상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70대 익명 할아버지, 서신동 주민센터에 20만원 기부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서신동에 기부천사가 있었네요,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데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올게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에 12일 오후 4시경 70대로 보이는 익명의 할아버지가 방문, 지폐와 동전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민원대에 놓고 사라졌다.

종이가방 안에는 만원권 등의 지폐와 동전을 포함해 총 20만원 남짓의 현금과 메모 한 장이 들어 있다. 메모에는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데 써 주시면 고맙고 내년에도 또 오겠다’는 따뜻한 마음이 실려 있다.

수백개의 100원짜리 동전이 수북한 종이가방은 20만원 남짓한 액수자 체보다 훨씬 더 값지고 울림이 담긴 종이가방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채규남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